

앙골라

해저유전개발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지속

앙골라는 계속되는 내전에도 불구하고 2000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약 22%에 해당하는 18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동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저유전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데, 해저유전이 개발되어 생산을 시작하면 일일 산유량이 2001년의 75만 배럴에서 2003년에는 95만 배럴로

늘어나고 경제성장률도 7.5%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부상

1999년에도 앙골라는 약 25억 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는데, 이는 이 나라 GDP의 1/3을 넘는 금액으

〈표 1〉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2000	2001f
실질GDP성장률	6.2	6.9	3.4	2.1	3.3
GDP ²⁾	6,500	7,700	6,400	3,300	4,000
소비자물가상승률	219.2	107.3	248.2	325.0	110.0
재정수지/GDP	-13,503.3	-25.0	-30.0	-6.0	-3.5
경상수지	-713.2	-1,010.6	-736.9	-159.9	-500
경상수지/GDP	-9.3	-15.8	-22.3	-4.0	-11.4
상품수지	2,904	1,464	2,683	5,390	4,683
수출	5,181	3,543	4,970	7,860	7,350
수입	2,277	2,079	2,287	2,470	2,667
외환보유액	396	204	496	1,198	..
총외채잔액	9,839	11,223	10,871	10,816	10,468
D.S.R. (paid)	19.1	30.9	20.1	17.4	17.2
일일 산유량(배럴)	710,000	730,000	750,000	760,000	750,000

주: 1999년 12월 기존 통화인 Kwanza에 대해 1/1,000,000로 화폐개혁을 실시,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달러화 표시 GDP가 2000년에는 전년에 비해 48%나 감소하였음.

자료: IMF, IFS 및 EIU, Country Report, 각호

〈표 2〉 아프리카 주요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액 (1984~2000)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84~1994 연평균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앙 골 라	215	472	181	412	1,114	2,471	1,800e
나 이 지 리 아	1,231	1,079	1,593	1,593	1,051	1,005	1,000e
남아프리카공화국	60	1,241	818	3,817	561	1,502	877
이 집 트	741	598	636	891	1,076	1,065	1,235
모 로 코	352	335	357	1,079	329	847	201
아프리카 전체	3,952	4,694	5,622	7,153	7,713	8,971	8,198
석유 수출국 ^{주)}	5,370	6,652	13,198	18,180	13,256	5,250	5,915
전 세계	200,145	331,068	384,910	477,918	692,544	1,075,049	1,270,764

주: 알제리, 앙골라, 바레인, 브루나이, 콩고, 에콰도르, 가봉,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랍에미리트, 베네주엘라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1*

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앙골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별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비교해보면, 1998년 이후 앙골라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모로코 등 아프리카의 주요 외국인투자 유치국들을 모두 앞지르고 있다. 또한 주요 석유수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 중 앙골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에는 약 8%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30%로 크게 증가하였다.

UNCTAD의 2001년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999년 25억 달러에서 2000년 18억 달러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전개발 프로젝트들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허가가 늦어지면서 석유메이저들의 투자가 다소 지연된 데 기인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 여부는
석유가격에 달려**

1998년 이후 앙골라가 아프리카 제1의 석유생산국인 나이지리아와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앞질러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게 된 이유는 30여 개 이상의 신규 해저유전에 대한 석유메이저들의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96년 지라솔(Girassol) 심해유전¹⁾의 발견 이후 심해유전 개발붐이 일면서 외국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이 나라의 심해유전 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석유탐사 지역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석유메이저들은 그 동안 고비용과 고기술이 필요한 심해유전의 개발을 미루어 왔으나, 1999년 후반 이후 석유가격이 배럴당 20달러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심해유전 개발의 채산성이 높아지자 본격적으로 심해유전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석유가격 하락이 앙골라의 석유산업에 대한 석유메이저들의 증장기 투자에 다소는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 앙골라의 대표적인 심해유전은 Block 14(Chevron), Block 15(ExxonMobile), Block 17 (Total FinaElf), Block 18(BP Amoco) 등으로 이들 심해유전의 추정 매장량은 약 100억 배럴임.

〈표 3〉

앙골라의 석유산업 투자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유전답사	유전개발	유전운영	합계
1994	131	781	285	1,197
1995	119	872	340	1,331
1996	260	791	539	1,590
1997	499	815	611	1,925
1998	521	1,087	635	2,243
1999	487	2,140	733	3,360
2000	497	2,953	681	4,131
2001	170	3,745	953	4,868
2002f	142	3,580	1,136	4,858
2003f	142	3,441	1,242	4,825

자료: 앙골라국영석유회사(SONANGOL)

〈표 4〉

유가 전망과 앙골라의 산유량

	2000	2001	2002	2003
브렌트유(US\$/배럴)	28.5	24.28	18.26	20.19
일일 산유량(bpd)	760,000	750,000	850,000	950,000

주: 앙골라는 2001년 현재 75만 bpd에서 지라솔(Girassol) 유전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20만 bpd를 추가로 생산하여 2003년까지 95만 bpd 생산이 가능하며, 2010년이면 200만 bpd까지 증산하는 것이 목표임.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1.12

ChevronTexaco, Exxon, Statoil, BP, TotalFinaElf 등은 앙골라 해저유전 개발에 이미 참가하고 있지만, 해저유전 개발이 약 30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므로 석유가격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투자를 서두르지 않고 향후 석유가격 동향을 주시하여 투자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앙골라 정부도 만약 석유가격이 배럴당 18달러 이하로 낮아진다면 앙골라의 석유산업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여, 非OPEC 회원국이지만 2002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OPEC의 감산 조치에 동조하고 있다.

【李 惠 景】